



## John 6

요한복음 6  
Tape #8074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ohn chapter six as we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여 요한복음 제6장으로 넘어가자.

*After these things (6:1)*

That is, the things of Jesus being to the feast in Jerusalem and the healing of the lame man at the pool of Bethesda and the discussion that came up with the Jews over that on the sabbath day. 여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하신 일, 한 절름발이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쳐주신 일, 그리고 유대인들과 가진 안식일 논쟁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He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6:1).*

In chapter six, we have John's account of the middle part of the ministry of Christ which begins more or less at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and will take us through to Peter's confession at Caesarea, Philippi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ctually chapter six encompasses about two years of Jesus' life. This is all that John gives us out of this two years of the middle ministry of Jesus. Other gospels give us other events. But you remember John is selective. He is giving just certain of the signs that Jesus did. And so here in the sixth chapter, we have a couple of signs, but this is all that John tells us of this middle ministry of the life of Jesus, a two-year period of time. He picked out these two events in this particular two years. 6장에서는 그리스도 사역의 중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중기의 사역은 대체로 세례 요한의 참수 때 시작이 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때까지 계속된다. 사실상 이 6장은 예수님의 생애 중 약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사는 6장 뿐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기사들도 들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필자 요한은 기사들을 선택적으로 수록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다. 여기 6장에서는 뒤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 2년에 대해 요한복음이 전하는 사건은 그것들 뿐이다. 요한은 이 특이한 2년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사건만을 선택했던 것이다.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his miracles which he did on them that were diseased (6:2).*

At this point the popularity of Jesus is growing. Everywhere He goes He's followed by a multitude of people. And you remember that the other gospels tell us that the occasion of going over the sea of Tiberias was the fact that the disciples had come back that He had sent us. They gave the reports of how the Lord had worked with them. Devils were subject and so forth. And He said,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that we might just relax a bit. There were multitudes of people thronging Him everywhere He went. And so they went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get a little rest and relaxation. But the people saw the direction they're ship was going and they ran around the upper part of the sea of Galilee so that by the time they landed in this deserted area near Bethsaida, it was deserted. There was a crowd of people waiting for them. 이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 보면, 여기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서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잠시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윗쪽으로 에둘러 달려가 벳세다 근방으로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황량한 광야였다.

And so Jesus ministered to that crowd of people all day up until the evening. John puts in this fact that,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온 종일 저녁 때까지 봉사하시게 되었다. 요한은 이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The passover, feast of the Jews, was close (6:4).*

They were in that time of the passover feast which means that it was a full moon. 그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월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And Jesus went up into a mountain, and there he sat with his disciples (6:3).*

When Jesus then lifted up his eyes, and saw a great multitude or a great company come unto him, and he said unto Philip, Where can we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And this he said to prove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6:5,6).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와야 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6:5,6).

It was just sort of a test of Philip's faith and confidence in Him. Philip really didn't pass the test. He sort of looked at it from purely a natural standpoint. He said, Lord, I don't think that we could buy bread. I think it would cost about eight thousand dollars to buy enough bread for all of these people.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많은 떡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대략 6천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Jesus was wanting to know the kind of confidence they had in Him. If Philip would say, Well Lord, You know You can do anything. What do You want to do? But Philip just looked at it from purely a natural standpoint. Andrew was a little braver. He made a slight suggestion but then he immediately dismissed it. He said, 예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떤 종류의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셨다. 빌립이 이런 대답을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글쎄요, 주님,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일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안드레는 좀 더 용감했다. 그는 뭔가를 약간 제안했다가는 이내 그것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다.

*There's a little lad here with five loaves and two fish. But what is that with this multitude (6:9)?*

In other words, it was, Here's a little bit but. And then he immediately dismissed his thought.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다. 여기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내 자기 생각을 접고 말았다.

*But Jesus said, Make the men sit down. Now there was a lot of grass in that place (6:10).*

At the passover season, you're in early spring. And the area around Bethsaida, covered with grass and wild flowers, is very beautiful in the early spring up in the upper portion of the Galilee region there. Beautiful fields covered with grass and flowers. And so Jesus said, Have them sit down. 유월절은 초봄에 해당했다. 초봄에는, 풀과 들꽃으로 뒤덮인 벳새다가 매우 아름다웠다. 벳새다는 갈릴리 지역 윗쪽에 있었는데, 풀과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들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 들판에 앉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So the men sat down, and the number of them was about five thous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to those that were sat down; and likewise also the fish as much as they would. When they were filled (6:10-12),*

The Greek word there is literally gluttoned. They were really filled. They were like you are after the Thanksgiving dinner when you feel like, I can't eat another bite of pumpkin pie or I'll burst. So "when they were filled,"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문자 그대로 포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참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와 같은 포만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호박 파이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 더 먹으면 아마도 배가 터질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배

불렀을 때,”

*he said un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that nothing be lost. They gathered them together,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remained over and above unto them that had eaten. 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miracle that Jesus did, said, This is of a truth that prophet that should come into the world (6:12-14).*

They saw this marvellous miracle. They began to say, “This is in truth that prophet.” Moses had prophesied that there shall come another prophet like unto myself, and to him you shall give heed. When Jesus did this miracle, the people were saying, “This is the prophet that Moses said was going to come into the world. Truly this of a truth is the prophet which was to come into the world.”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진실로 그 선지자라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라 고 예언했다.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장차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진실로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다.”

*When Jesus therefore perceived that they would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a king, he departed again into a mountain himself alone (6:15).*

They were ready to acclaim Him forcibly as the Messiah. But they were seeking to acknowledge it on the wrong basis. The basis of the miracle of Hi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he fact that their stomachs were full. He had met their physical need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ission of the Messiah at His first coming.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piritual aspect of His mission that He was to lay down His life. He was to give His flesh. And thus, He did not allow them to, this popular movement of acclaiming Him as the Messiah on the basis of their having their physical needs met.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메시아로 모실 차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기초 위에서 메시아를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분이 오천 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기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분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으므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애썼다. 그들은 초림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메시아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셔야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필요가 충족된 사건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려 하던 운동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The other gospel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is the only miracle that is mentioned in all four of the gospels. The other gospel writers tell us also abou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hey fill in a few details that John doesn't give to us. John just gives us the bare essentials. But the other gospels tell us that Jesus went with the disciples down to the seashore and He had them get in the ship and He constrained them to go back over to the other side. Commanded them, go on back over to the other side. And then He dismissed the crowds. Okay, you've eaten, you're full now. Go home. And then He went on up alone into the mountain and Luke tells us that He was there praying unto the Father.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다른 복음서 필자들도 이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세부사항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다. 요한복음은 요점만을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배에 태우신 후 재촉하여 다른 편으로 가게 하셨다 고 되어 있다. 그들에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 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인 무리들을 해산 시키셨다. 자아,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홀로 산에 오르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

*The disciples went down unto the sea, And they entered into the ship, and they 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t the command of Jesus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서]. And it was now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And the sea arose by reason of a great wind that blew (6:16-18).*

It's sort of like the Santa Ana winds that we get here. It comes down through the canyon and up at the northern end there near Gennesaret. It really follows that canyon down and when it hits the sea of Galilee, it

really whips the thing up. You must realize that the sea of Galilee is some six hundred and fifty feet below sea level. The weather is much like the weather at the Salton Sea, which is also below sea level and you have then your high temperatures there in that valley you have the coastal cool air and of course, as the hot air rises the coastal cool air comes flowing down in. And so it can create some pretty powerful winds and some rather high seas on the Galilee. One of those times when the wind really began to blow, here were the disciples out there trying to row against the wind. 이 바람은 마치 이곳 산타아나에 부는 바람과 비슷했다.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다가 북쪽 끝 게네사렛 근처에서 올라가곤 했다. 바람은 줄곧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에 부딪친 후 위로 솟구치곤 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아래 650피트 지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갈릴리 날씨는 역시 해수면 아래에 있는 사해의 날씨와 흡사했다. 골짜기에서는 기온이 높지만 해변의 바람은 서늘했다. 물론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치면 해변의 서늘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하여 아주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곤 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 물결을 상당히 높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에, 제자들은 그 바람을 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Now they were seasoned seamen. They had spent, many of them, their lives there on the sea of Galilee. They were familiar with the moves of the sea of Galilee. In fact, it would seem that at least four of the disciples their hometown was Bethsaida. They had many of them moved over to Capernaum but they're not that far apart. The fishing is really good there on the upper end where the Jordan river comes in, brings a lot of nutrients and things and there's a lot of fish up there on the northern end. So the disciples knew that sea quite well. The natural thing for a seaman to do when you get a storm like that and you're rowing and you're not going anywhere, you've got the heavy seas, is to turn your boat around and go with the seas. The only danger is in the turning when you get crossways of being flipped over. But they were able seamen and they knew how to do it. 그들은 소금물에 전 뱃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바다의 생리를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제자들 중 적어도 4명은 고향이 벳새다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벳새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곤 했지만, 이 두 곳은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바다의 북단 즉 요단 강물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참으로 어황이 좋았다.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으므로 그 북쪽 끝에는 물고기도 많았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와 같이 강력한 바람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나 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뱃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은 바다에 순응하여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었다. 방향을 회전할 때 만날 수 있는 위험은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능한 뱃사람들이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But Jesus had commanded them to go to Capernaum. So they're out there really struggling as they're trying to row against the seas and against the wind. We are told that they had only gotten two-and-a-half to three miles at that point. From Bethsaida to Capernaum is about six miles across the sea. So it means they were out in the middle of the sea. They had only made it about halfway when their progress was halted by this wind. And as we made note this morning and it is I think significant, there is a common fallacy that we often hold thinking that if I am in the will of the Lord, if I am obeying the commands of Jesus, my life should be a piece of cake. That I shouldn't have any problems, I shouldn't have any troubles. I should always have calm seas with the wind at my back. Because after all, I'm doing the will of the Lord.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신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참으로 애를 쓰면서 바다 및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 때까지 2.5마일 내지 3마일 밖에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벳새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뱃길로 6마일 가량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의 중간에 와 있었던 것이다. 반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했는데, 그만 그런 풍랑을 만난 것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각의 오류인데, 만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 삶은 아주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내게 문제가 닥쳐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고민이 생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Let's think about that for a minute. Let's think about Jesus. In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there in Gethsemane, as He was facing the cross, you remember His prayer,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And submitting to the will of the Father did not bring the wind at His back and a calm sea. It brought the cross.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겔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지만 풍량은 잦아들지 않았고 바다는 고요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만 다가왔을 뿐이다.

Oftentimes for us, the will of God is not an easy thing. It many times is a very difficult thing. And I face adversities when I seek to do the will of God. So often I'm going against the tide when I seek to do the will of God. But Jesus saw their dilemma. Full moon, sea of Galilee, you know how clear the skies get around here when we get those Santa Anas. That's the only benefit of those things that I can see. They blow the smog halfway to Hawaii and we have some clear days. And so with the full moon and the sea of Galilee, you can see across the sea. Not that wide and He could see no doubt, as He is sitting there on the mountain, that little ship out there in the middle. And He realized it wasn't going anywhere with that strong wind. And so Jesus went out to help them.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나는 역경에 부딪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곤경을 바라보고 계셨다. 보름날 밤 갈릴리 바다,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는가. 그것은 산타아나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람이 불어 매연을 하와이 쪽으로 몰아가면 청명한 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만월이 뜬 갈릴리 바다도 그랬을 것이다. 바다 저쪽 끝이 바라다 보였을 것이다. 그리 넓은 바다가 아니므로, 산 위에 계시던 주님은 바다 가운데 떠 있던 그 조각 배를 분명히 내려다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려다 보자니까, 그 배가 강력한 바람을 만나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러 내려오셨던 것이다.

That's the beautiful thing. I may face some adverse winds. I may face some real trials but the Lord will come to rescue me. He'll be with me in the storms. The Lord said,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they will not overflow you: when you pass through the fire, it shall not burn you" (Isaiah 43:2). He didn't say you're not going to be facing heavy waters, deep waters. He didn't say you won't be facing the fire but He has promised that He would be there with you in it.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다. 내가 역풍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큰 시련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는 구원하러 다가오실 것이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2). 그분은 우리가 격랑과 깊은 물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럴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You remember the three Hebrew children there. He didn't spare them from the fiery furnace. That's what we would have done, have we been in control. But He allowed them to go into it that He might be with them in it and show that He can preserve even in the fiery furnace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Him.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갔던 히브리인 세 소년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불 가마를 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불 가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셨다. 그 속에서 그분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불 도가니 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So the Lord came to them but He was walking on the water. They looked up and here, though they weren't getting anywhere against the wind, He was. Head down, into the wind, walking towards them on the water. They were frightened.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6:19). 예수님은 그렇게 물 위로

다가오셨다. 제자들은 위를 보나 옆을 보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어 찢찢매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산을 내려오시더니 바람을 가르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6:19).

*But Jesus said unto them, It's I; don't be afraid. And so they willingly (6:20,21)*

I bet they willingly,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기뻐서

*received him into the ship: and immediately the ship was at the land whither they went (6:21).*

Immediately they found themselves in Capernaum. That was a miracle in itself. John doesn't tell us about Peter venturing out. He sort of leaves out, he gives us some other insights of Peter's mistakes but he's gracious to Peter on this one and doesn't mention it. Of course, he probably knew it was already recorded in the other three gospels. What's the sense of rubbing it in. 그러자 즉시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다. 요한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는다. 요한은 베드로의 실수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본 해석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요한도 이 사건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베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The following day (6:22),*

This was a couple of days in the life of Jesus. The one day there going over to Bethsaida, the crowd meeting them. Him ministering to them up until the evening. His taking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feeding them. And then sending them away. Walking to the disciples on the water. Now the following day,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의 이틀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첫 번째 날은 예수님이 벳새다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만났다. 주님은 그들을 저녁 때까지 섬기셨다. 주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저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것이다.

*when the people which stood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over in Bethsaida 건너편 벳새다에] saw that there was no other boats there, except that one whereinto his disciples were entered, and that Jesus went not with his disciples into the boat, but that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alone (6:22);*

And John gives us a little note here. 요한은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첨부한다.

*(Howbeit there came other boats from Tiberias near to the place where they did eat bread, after that the Lord had given thanks:) When the people therefore saw that Jesus was not there, neither his disciples, they also took shipping, and came to Capernaum, seeking for Jesus (6:23,24).*

When they came to Capernaum, they saw that there was only the one boat, the one that the disciples went in. And they knew that Jesus wasn't in it.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그들은 작은 배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타고 온 배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동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nd so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said to him, Rabbi, how did you get here (6:25)?*

Interesting, Jesus did not answer their question but,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

*He did answer them saying,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ou seek me, not because you saw the miracles, but because you did eat the loaves, and were filled (6:26).*

You seek Me. You didn't really see the real miracle. You ate and you were filled, that's why you're seeking Me. But you really didn't see the miracle, the real purpose behind it.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너희는 진짜 기적을 보지 못하였구나. 너희가 먹어 배가 부른 경험을 했기에,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진정한 기적은 보지 못하였다. 이 일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은 깨닫지 못하였다.

*Labour not for the meat which perishes,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s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6:27).*

God has placed His seal upon Him. "Labour not for the meat that perishes." Jesus is going to seek to bring them from a purely materialistic thinking into the spiritual realm. He's going to try to help them understand and to see what they didn't see of the spiritual nature of what happened. As He talks to them in

the realm of the Spirit, their thinking still in the realm of the flesh.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을 치셨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예수님은 순전히 물질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내려고 애쓰고 계셨다.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 시키고 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분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아직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And this often is a problem that we have. As the Lord seeks to teach us things of the Spirit and we're always thinking in realms of the natural, the physical; and the Lord is constantly trying to draw us into the spiritual. In a little while He's going to say, The flesh profits nothing. “Don't labour for the meat that perishes. The flesh profits nothing.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s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이것은 우리도 종종 봉착하게 되는 문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나,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것들의 세계에서 생각한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신다. 잠시 후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What shall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6:28)?*

They knew the law. They knew what God required of them in the law. But they knew their inability to keep the law. So “what must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What can we do that we might keep the law? They recognized that they needed help. I cannot keep the law of God. I want to do the works of God. So what shall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The desire to work the works of God but recognizing my inability to do so.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물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Is there a dynamic? Is there a power? Is there something that you can lead us to that will help us that we might do the works of God?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할 뭔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on him whom he hath sent (6:29).*

Through believing in Jesus, you will come into a new dimension of life. The life of the Spirit. In the life of the Spirit, there is the dynamic to enable you to be what God wants you to be. As Jesus was promising the Holy Spirit to His disciples, He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dunamis, dynamics] after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Acts 1:8). That which you cannot be in and of itself or through your own abilities or through your own efforts, through your own results. He can help you to be through the dynamic of the Spirit that you receive by believing on Jesus Christ. “This spake He of the Spirit, which was to be given to those that believed on Him” (John 7:39), the scripture says. So through the Spirit is the dynamic. Through believing in Jesus there is the receiving of the Spirit. “What must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This is that work of God” in your life that will enable you to keep God's divine ideals.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이다. 성령의 생명 속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이룩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다. 저절로 이뤄지는

삶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9)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는 곧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In Deuteronomy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that you love God, and that you ser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and all of your soul” (Deuteronomy 11:13). The prophet Micah said, “He has shown you, what is good; what does God require of you, that you do justice, love mercy,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God’s requirement.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신 11:13).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Jesus said,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Matthew 5:48). I can’t be perfect. I know me well enough to know that I’m not perfect and I can’t be. Doesn’t mean I wouldn’t like, I would like to be perfect. However, I wouldn’t have much tolerance for the rest of you if I were. But we all of us realize that we can’t be perfect. I can’t keep the law of Go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나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As Peter,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the Gentile believers, what relationship do they have to the law and what should we rule as far as the Gentiles and the law? Peter said, “Why should we put on them a yoke of bondage,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Why load it on them? We haven’t been able to keep it. It’s pretty honest confession by Peter. 초대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 이방인들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방인들 및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을 이방인들에게 정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 15:10)? 왜 그런 멍에를 그들의 목에 메우고자 하느냐? 우리도 그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였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직한 것이었다.

God’s divine ideal I am incapable of keeping even though I desire to keep it. So what must I do that I can work the works of God? And Jesus said, This is it, believe on the One that God has sent.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will enable you then to do the works of God. God doesn’t give up on me just because my flesh is weak. But He gives to me that dynamic, that power of His Spirit whereby I can be what God would have me to be.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그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It isn’t that God’s standards have been lessened for me. It isn’t that God has stooped down to my lower level. He still seeks to bring me to His high level. Knowing I can’t attain it and achieve it in myself, He gives to me the dynamic, the power of the Spirit by believing in Jesus. God hasn’t given up on you. And the Lord is going to perfect that which concerns you. “Having began a good work in you, He’s going to continue to perform it until He has accomplished it” (Philippians 1:6).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으로 떨어지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그분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 애쓰신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에게 대한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And so day by day, we grow in grace as we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as we yield more and more to the Spirit, as we learn to walk after the Spirit and to be led by the Spirit. As we reckon the old life to be dead, crucified with Christ, more and more the life of the flesh has less power over us as we walk in the Spirit and we are being conformed by the Spirit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도 자라게 된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더 받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배력을 더 많이 잃게 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닮게 된다.

As Paul wrote to the Corinthians, “We, with open face beholding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into the same image, by His Spirit that works in us” (2 Corinthians 3:18). How beautiful that is. No, I haven’t yet arrived, Paul said. “I’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of Jesus Christ.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this is what I’m doing,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The things which were behind were the things of the old life of the flesh, leaving that, pressing on to the life of the Spirit, “I’m pressing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3,1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나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는 중이다. 뒤에 있는 것이란 육신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놔두고 성령의 생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는 말이다. 나는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2-14).

I’m not yet what God would have me to be but I’m on the way. I’m getting closer. Thank God I’m not what I was a year ago. Or two years ago. There’s progress, there’s growth. The Spirit of God works in me. He’s not through, He often puts up “Under Construction” signs as He shows me those areas of the life that still need to be yielded and surrendered to Jesus Christ. But He’s working. And so that dynamic. That’s what they were seeking, Jesus told them how to get it. Believe on the One whom God hath sent. 나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날로 더 그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1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2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발전이 있었고 진보가 있었다. 하나님이 영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분은 아직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직 “공사 중”이란 간판을 내 걸고 계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들이 추구하고 있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They then said unto him, What sign do you show us then, that we may see, and believe you? what do you work (6:30)?*

They said,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6:31).*

The idea is that, Moses gave us the bread from heaven. He said there will be another prophet like unto

himself. Yes, you gave us bread yesterday but that was just one day. Moses did it for forty years. They're thinking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physical realm. They're still thinking of the full stomachs, and the kingdom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hysical realm rather than the spiritual kingdom.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or drink; b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Romans 14:17). But they're thinking of meat and drink. "Our fathers ate manna in the desert or in the wilderness. What sign do you show us?"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떡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루에 불과하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떡을 주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왕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들은 배가 부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왕국도 신령한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에서 건설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그러나 저들은 떡과 음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And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6:32),*

That "Verily, verily" is always an attention-getter. It's sort of, Listen carefully to what I'm going to say.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언제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는 의미이다.

*Moses gave you not that bread from heaven (6:32);*

Moses didn't give you that. 모세가 그 떡을 준 게 아니다.

*but my Father is giving to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6:32).*

Taking it from the manna, the physical sustenance that God gave to them in the wilderness, to the spiritual again. God gives you the true bread. My Father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육신적인 양식인 만나 얘기로부터 신령한 양식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and giveth life unto the world (6:33).*

That's the true bread. 이것이 바로 그 참된 떡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Lord, evermore give us this bread (6:34).*

Like the woman of Samaria, Give me this water, that I don't thirst and have to come out here anymore. 저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과 유사한 말을 했다. 나에게 이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6:35):*

They're talking about Moses and they're thinking of the comparison of the prophet with Moses. But you remember that when Moses came to the burning bush, and the Lord spoke to Moses out of the burning bush, telling him to go to the Pharaoh and to demand the release of the Israelites from their bondage and slavery in Egypt; Moses said, But they won't believe me. And who shall I say has sent me? What was God's answer? I am that I am hath sent thee. 저들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모세와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자였다. 그가 타는 숲 쪽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숲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생활과 속박에서 풀어주라고 요청하라.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내었다고 저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라.

And so here Jesus said, I am. This is one of those places where Jesus is using this name for Jehovah for Himself. "I am the good shepherd" (John 10:11).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35). "Before Abraham was, I am" (John 8:58). And in the garden when the soldiers came to arrest Him, Jesus said, Who are you looking for? They said, Jesus. He said, I am. And they fell backwards on the ground (John 18:4-6). And so, "I am that ego eimi,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임)”라고 지칭하셨다. 본문은 여호와께 적용되는 이런 명칭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몇몇 성구들 중의 하나이다. 그 다른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 10:10).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8:12).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 6:3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요 8:58). 군사들이 그분을 잡으러 겻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내가 바로 그니라”고 답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저들은 뒤로 넘어져 자빠졌다 (요 18:4-6).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that believeth on me shall never thirst (6:35).*

Radical statements. Jesus said to the woman of Samaria, “He who drinks of the water that I give shall never thirst again” (John 4:14). Talking again in the realm of the Spirit. Again, He’s talking to them in the realm of the Spirit. You’ll never hunger, you’ll never thirst. Recognizing that there is deep inside of every man a hunger for a meaningfu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역시 과격한 발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이 역시 영의 세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영적 시각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코 주리지 않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신 말씀이다.

As David said, “My soul thirsteth after Thee, O God. As the hart panteth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s my soul after Thee, O God. For the living God” (Psalm 42:1,2). How I thirst for God, how I hunger for a meaningfu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And Jesus is declaring that He is the bread of life and if you will come to Him, you’ll be satisfied. You won’t hunger again. You won’t thirst again because in Him you will find that for which the Spirit hungers and thirst, the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다윗도 그런 갈망을 표출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시 42:1,2).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과 관련을 갖고 싶어하는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경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ut I said unto you, That you’ve also seen me, and you believe not. All that the Father giveth me shall come to me; and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6:36,37).*

What a beautiful promise.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Here you have both sides of the coin. “All that the Father giveth to Me shall come to Me.” That’s divine sovereignty. But human responsibility, choice—he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When we think of this in light of predestination and election, if you come to Jesus, asking forgiveness of sins, submitting yourself to follow Him as Lord, acknowledging Him as Lord, He doesn’t go down a list to find out if your name is on it. He doesn’t say, Oops, oops, somebody goofed. Sorry your name’s not here. Doesn’t happen.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신의 주권이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도 있다. 즉,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정과 선택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로 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면, 그분은 피택자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큰 일이군. 누군가가 실수를 한 모양이야. 미안하지만 자네 이름이 이 명단에 없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Whosoever will, let him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You say, Well, I

can't reconcile that. Of course you can't. No one else can and that's why they argue so much.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글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다.

*I ca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6:38).*

What a marvellous statement. And so we hear it again in the garden, “Nevertheless not My will be done, but Thy will, be done” (Luke 22:42).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And that should be true of every one of our lives. We shouldn't be here to do our own will. But we should be her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Life is really found when we submit ourselves into doing the will of God. That's where fulfillment comes. I was created for His good pleasure. If I seek my own pleasure and live for my own pleasure, I'm going to live an empty, vacuous life. But if I will learn to live to please Him, and if I will seek to please him, I will find a very rich and fulfilling and overflowing cup. My life will be an overflowing cup. Oh the pleasure, and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Jesus said that please the Father.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겐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 번 듣게 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발견된다. 거기서 성취감도 생겨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이 좋을 대로 산다면, 나는 공허하고 열빠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잔이 매우 풍요롭게 차고 넘치며 성취 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차고 넘치는 잔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항상 행하게 될 것이다. 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And this is the Father's will which hath sent me, that of all which he hath given me I should lose nothing, but should raise them up again at the last day (6:39).*

That's the Father's will. That we who have been given to Him, He'll keep us and raise us up in that last day.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And this is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He repeats it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신다], that every one which seeth the Son, and believeth o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6:40):*

That is, sees Him in the true light of the Spirit. Sees in the sense of comprehending, understanding the realm of the Spirit. Those that really see the Son. “It's the Father's will, those that see and believe on Him, that they may have everlasting life,” and His promise,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된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해력을 갖고 그분을 보며, 성령의 영역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참으로 아들을 보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The Jews then murmured a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And they said, Is not this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is it then that he saith, I came down from heaven (6:40-42)?*

Their familiarity with Him. Isn't this Jesus? We know His father and mother, Joseph and Mary. 그들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가 그 예수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알고 있다.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Don't murmur among yourselves. No man can come to me, except the Father which hath sent me draw him (6:43,44):*

Another interesting statement. “No man can come except the Father draw Him.” But I believe that the Father seeks to draw all men to Jesus Christ. And all of us who came, came as the result of the Spirit drawing us, the Father drawing us. It’s my responsibility, however, to yield to the Father.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And so there is the divine operation of God but there is also that necessity of human response to the work of God. 이것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진술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것은 모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그러므로 신의 역사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인간 편에서의 반응도 있어야 한다.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shall be all taught of God (6:45).*

Notice “they’ll all be taught of God.” “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에 유의하라.

*Every man therefore that hath heard, and hath learned of the Father, cometh unto me. Not that any man hath seen the Father, except he which is of God, he hath seen the Father.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6:45-47).*

This is basically what He said to Nicodemus who was seeking the method or the way by which he might be born again. And Jesus said, “Whosoever believeth on Him,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And so agai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같다. 그가 예수께로 와서 거듭 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I am that bread of life (6:48).*

They murmured at that. They had problems with it. We know His father and mother, how is it that He said He came down from heaven and so forth. But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투덜거렸다. 그들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거늘, 어떻게 하여 그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다.

*Y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This is the bread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that a man may eat thereof, and not die (6:49,50).*

Death has two biblical definitions. One, the separation of the consciousness from the body. When your brain no longer functions, you’re dead. The other definition is the separation of your consciousness from God. If you are living without a consciousness of God, without an awareness of God, with no thought of God, you are dead spiritually. The separation of your consciousness from God, living apart from the consciousness of God. Living only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flesh and the things of the flesh, the Bible says you’re dead. A person who lives only for pleasure, the Bible says, is dead while they’re still alive. Jesus is using here this second definition when He says that if we believe in Him, we will never die. You’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 consciously. 사망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정의가 있다. 그 하나는,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죽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아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 및 육신적인 것들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한다.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그가 비록 살아 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번째의 정의를 응용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I am extremely thankful and becoming more thankful everyday that He's not talking about I'm going to have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That is not a happy prospect as the body is going to pieces. But He's talking about the spirit again, the things of the Spirit. 나는 내가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더 감사하게 된다.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전망이 아니다. 몸은 장차 분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은 다시 영에 대해, 성령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man eat of this bread, he sha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that I will give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6:51).*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through Him. He died that we might live. The bread is His flesh. He said to His disciples when He broke the brea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4).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셨다. 그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게 되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떡은 그분의 살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4).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turned every one of us to our own ways; but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5,6). He bore our sins. He gave His body, His flesh as a sacrifice, sin offering for you and for me.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분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The Jews therefore strove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Then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these are those attention words again], I say unto you, Except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6:52,53).*

If you don't partake of Me, if you don't recognize that I'm given My life for you as a sacrifice, an atoning sacrifice for your sin, if you don't recognize that, you don't have life. You don't have spiritual life. Again, He's tal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 and their thinking in terms of the flesh and this is the conflict that's going on. They're on two different levels. '만일 너희가 나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을 만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는데, 그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고 저들은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양쪽 모두 서로 다른 기반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And so often as we are trying to explain to people about Jesus Christ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re on two different levels. They're thinking on the physical, you're tal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 and they can't comprehend, they don't understand. It's just mumbo-jumbo. And yet, to you it's very clear, it's very plain.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기반 위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무의미한 주문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백한,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So here is Jesus talking on the level of the Spirit; they're thinking on the level of the flesh.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저들은 육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ath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6:54).*

Again that little promise and phrase. 다시 그 짙막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For my flesh is meat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6:55).*

We are brought to the communion table and there we take the cup.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that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This bread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1 Corinthians 11:24,25). Partaking of Christ. The blood of Christ cleansing us from all sin. Nourished and strengthened by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성찬상을 향해 나아가 잔을 들게 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4,25).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자양분과 힘을 얻게 된다.

*As the living Father hath sent me, and I live by the Father: so he that eateth me, even he shall live by me (6:57).*

There is the spiritual life; it's in partaking of Jesus Christ.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This is that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not as your fathers did eat manna, and are dead: he that eateth of this bread shall live for ever. These things he said in the synagogue, as he was teaching in Capernaum. Many therefore of his disciples, when they had heard this, said, This is an hard saying; who can get this one? When Jesus knew in himself that his disciples were murmuring at it, he said unto them, Does this offend you? What and if you shall see the Son of man ascend up where he was before (6:58-62)?*

Is this bothering you?, He said. When it actually happens. Their concept of the Messiah was materialistic. He's fed us, we're full. Let's make Him the Messiah. It was a materialistic Messiah that they were looking for. One that would feed them without any effort on their part. Jesus knows that He is to give His life, His body. He is to be a sacrifice. And so He's talking to them about My flesh being meat indeed. My blood being drink indeed. You must partake. But He's talking about the cross and the sacrifice that He's going to make for sins.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찌 하려느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배 불리셨다. 그러니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물론적인 메시아였다. 그들 편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해도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메시아 말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과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여간 여기서 그분은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So He said, Does this offend you?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see Me on the cross? When you don't see Me throwing over the Roman government. When I don't lead the armies against the armies of Rome. This may offend you but when you see Me on the cross, and even the disciples that stuck with Him, even Peter who said, Lord, where can we go, You have the words of life. Even they were offended. Jesus said,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He's referring to the cross and the cross was a stumbling block to them. So when He begins to talk of His cross, it's difficult. They are murmuring and many of them turned, didn't follow Him anymore. They couldn't handle that. They couldn't handle the concept of the spiritual kingdom of God because they were thinking only in terms of the material. 그분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고 말씀하셨다. 그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너희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 군대와 맞붙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던 제자들조차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실족을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인데,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그들은 수군거렸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돌아섰으며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We are told, Many therefore of His disciples,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It's a hard saying; who can hear it? So Jesus then said,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게 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다.

*It is the spirit that makes alive; the flesh profits nothing (6:63):*

Always trying to lift us from this unprofitable realm of the material world into the profitable realm of the spiritual world.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 over the flesh. The spiritual realm over the material realm. Something that Jesus constantly was teaching. 예수님은 물질 세계의 이 무익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적 세계의 유익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언제나 애를 쓰고 계셨다. 영은 육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었다. 신령한 것들은 물질적 것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6:63).*

“It's the spirit that makes alive; the flesh profits nothing.” God help us to really grasp that.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But there are some of you that believe not. For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who they were that believed not, and who should betray him. And he said, Therefore said I unto you, that no man can come unto me, except it were given unto him of my Father. From that time 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they walked no more with him (6:64-66).*

If you're not going to set up a physical kingdom, material kingdom, you're not going to make me rich and feed me with the bread from heaven, then I'm going home. 만일 당신이 물리적인 나라를 즉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내게 먹이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Then said Jesus unto the twelve, Will you also go away? Then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6:67,68). 그러자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67,68)?

Where can you turn? Where can you turn? Looking back at the world, there's really nothing to go back to. We might have difficulties. We might have problems. We might not understand exactly and fully what the Lord is seeking to teach us. But where can we go? We know that the world has nothing. It is empty, it has nothing to offer. “Lord, to whom can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돌아갈 곳이 사실 아무 데도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에 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세상은 공허하다. 세상은 제공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주여,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answered them, Have not I chosen you twelve, and one of you is a devil? He spoke of Judas Iscariot the son of Simon: for he it was that should betray him, being one of the twelve (6:69-71).*

So John lets us know that Jesus all along was aware of Judas, of what he was doing and what he was going to do. And yet ordained of God for this purpose.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전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장차 어떤 일을 할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Next week, chapter seven. Next Sunday night, Anaheim Stadium. And so we'll have a couple of weeks in chapter seven for you to study it and really digest it well. 다음 주에는 7장을 살펴보고 하겠다. 다음



주일 밤은 애너하임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장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뒤 주 될 것이다.

Father, we give thanks for the bread of life. How wonderful that we can eat and live forever. Jesus, we pray that You will lift us from the materialistic concepts and from the concepts, Lord, that are fleshly. Recognizing that that profits nothing. And lift us, Lord, into the realm of the Spirit that we might live in the Spirit and walk in the Spirit and follow after the Spirit, being led by the Spirit, empowered by the Spirit. That we might be all You would have us to be and do all that You would require of us to do.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 우리가 비읍니다: 주여, 우리를 물질주의적인 관념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육신적인 상념에서 건져내 주소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을 좇으며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일만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Your interpretation of life. This is, Jesus said, You believe on Me, you're going to have life. What is your interpretation of life? To the prodigal son who came to his dad, how did he interpret life? It's fancy clothes, nice shoes, jewelry, plenty to eat and drink. Partying. I'm going to go out and live it up. That was the interpretation of life. But what did it lead him to? Pig pen. Destitute. Empty. Came home to his dad. What did he find? Clothes. Dad said, Put the robe on him. Found shoes. Put new shoes on him. Found jewelry. Put on the ring. Found plenty of food. Kill the fatted calf. He found the party. What people are searching for, life in the world, leaves them empty and destitute and all the while, that life is at the Father's house. Aren't you glad that you know the Father? And He's drawn you to that wonderful life of the Spirit that is so satisfying, so rich and so full.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말해 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 그는 생명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아름다운 옷, 멋진 신발, 보석, 먹고 마실 것이 많은 것이었다.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다. 나는 집을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살겠습니다---이것에 생명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 우리에 빠지게 되었다.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였는가? 옷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저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찾아와라. 저에게 새 신발을 신겨라. 보석을 가지고 와라. 저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풍성한 음식을 차려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파티를 열어주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그들을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한편 참 생명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의 놀라운 생명이게로 이끄셨다. 그것은 지극히 만족스럽고 지극히 풍요롭고 지극히 충만한 생명이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watch over you. May He guide you through this week as you seek to know and understand His will. And may He give you that power to work the works of God. In Jesus' name, Amen.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기원합니다. 주께서 이 주간 내내 여러분을 지도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자 애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